

문화재청 공고 제2018-5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2. 1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

- 지정현황 : 보물 제218호(1963.1.21. 지정)
- 명 칭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 규 격 : 높이 18.12m
- 수 량 : 1구
- 재 질 : 석조
- 조성연대 : 고려 전기(968년경)
- 사 유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명으로 968년경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불이다.

석불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 말 승려 무외(無畏)가 쓴 「용화회소(龍華會疏)」를 비롯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고려 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려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대 뛰어난 조각장이 참여하여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은 좌우로 빳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보관(寶冠)을 썼고 오른 손에는 청동으로 만든 꽃을 들고 있다. 널찍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균제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등은 한국 불상 중 가장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미의식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아한 이상미(理想美)를 추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창성과 완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입상>